

“우이도 사구 보호, 통제만이 능사 아니다”

신안 우이도 사구 올바른 복원·개방 위한 민·관 토론회

1990년대 높이 최대 80m 장관... 숲 우거져 모래 공급 막혀
개방정도·보존방식·주민참여·학술용역 등 다양한 의견 교환

동양 최대 풍성사구를 가진 신안 우이도의 복원과 개방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도초면 우이도에는 동양 최대의 풍성사구가 있다. 우이도 사구는 바람에 실린 모래가 쌓이면서 형성된다. 바람이 벗어낸 사구 모래 작풍은 지상 최대의 예술품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우이도 사구는 1990년대 높이 70~80m, 폭 밑쪽 20m, 위쪽 50m로 대형 사구에 속했지만, 지금은 높이가 30m 이상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우이도 사구 지형 변화 복원 모니터링을 위해 2011년부터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5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러한 통제 조치는 지난 7월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2025년까지 연장됐다.

장기간 우이도가 통제되면서 복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도와 신안군, 우이도 주민, 섬연구소 관계자들이 최근 우이도에서 사구의 올바른 복원과 개방을 위한 민·관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 풍성사구(風成沙丘)
바람에 모래가 날려 쌓이는 지형.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강재운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은 “1990년대 후반까지 수백 마리의 소와 염소가 사구 일대를 오르내리며 풀을 뜯어 먹었는데 모래가 바람에 잘 날려서 사구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구 주변의 나무가 빨갭니다. 모래가 쌓이면서 나무가 불면 자연스럽게 모래가 쌓였다”며 “하지만 빨갭니다. 모래가 쌓이면서 나무가 불면 자연스럽게 모래가 쌓였다”며 “하지만 빨갭니다. 모래가 쌓이면서 나무가 불면 자연스럽게 모래가 쌓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도해국립공원 서부사무소의 통제 정책이 사구 훼손을 가속화했다는 주장이다.

우이도 사구와 지리·환경이 비슷한 인천시 옹진군의 대청도 육죽포와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변 사례도 소개됐다.

최광희 관동대 교수는 “우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보호받으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



신안 도초면 우이도의 동양 최대 풍성사구.

제하는 반면, 대청도의 육죽포 역시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일본 돗토리현 사구처럼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환경에서 비슷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구 사멸”이라고 강조했다.

우이도 주민들은 사구 복원·개방 정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사구 개방의 정도와 보존 방식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웠지만, ▲방문객이 잘 인식할 수 있는 보행 유도 안내판 설치 ▲‘산지’ 매일 ▲주민 참여 학술 용역 등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유, 미래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풍성사구는 신안군의 향토 유적 제9호로 지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래언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구의 복원과 개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여수~거문도 ‘짚은 결항’ 해결

여수해수청, 새 여객사업자 선정...440명 승선 니나호 투입

짚은 결항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여수~거문도 항로에 부산-대마도를 운항하던 니나(Nina)호가 투입된다.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그로벌베스트 코리아에스앤씨는 최근 여수~거문도 항로 정기 여객 운송사업자에 선정됐다.

선사는 2016년 중국에서 건조한 326t 규모의 니나호를 여수~거문도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니나호는 440명을 태울 수 있으며, 최대속도 36노트로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2시간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여수를 출항해 나로도-초도-순죽도를 거쳐 거문도까지 운항한다. 평일에는 매일 1항차, 주말은 2항차로 운영할 예정이다.

니나호는 부산-대마도를 운항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뱃길이 끊기자 여수~거문도항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 측은 추가로 1447t 규모의 고속 여객선(700명 승선·승용차 30대 적재)을 거문도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은 시험 운항을 통해 안전성 검토를 거친 뒤 선석 사용 허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운항을 승인할 계획이다.

선사 측은 당초 지난달 31일 취항 기념식을 열고 시승 행사를 가지려고 했으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연기했다.

선사 관계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여수와 거문도 등 섬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거문도를 좀 더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운항을 준비하겠다”며 “홍보를 강화해 많은 관광객이 거문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거문도항로는 여객선사 1곳이 여객선 1척을 운항하고 있으나 낡은 데다 결항이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4월에는 선령이 만료됐지만 대체 선박이 투입되지 않아 1주일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2000여명의 발이 묶이고 삼지와 해풍속 등 특산품 배송에도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보기도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khkim@kwangju.co.kr

순천만 흑두루미 ‘남북 하늘길’ 연다

시, 국제기구와 남북 생태경제 교류 간담회...습지정보 공유 등 합의

순천시가 국제기구와 손잡고 ‘흑두루미 남북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남북 생태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간담회에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한스사이넬 재단 한국사무소,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동아시아사람사라지지역센터 국제기구 대표 등 7개국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 서

식지 보전을 위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흑두루미 사진전, 자료집 발간, 영상 제작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남한의 제1호 랍사르 사이트인 순천만과 북한의 문덕습지 정보를 공유하고 단계별로 가능한 남북 생태교류 사업을 논의했으며 국제기구 대표단도 순천의 습지와 국가정원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순천시는 순천만과 시베리아를 오가는 흑두루미가 북한의 제1호 랍사르 사이트인 청천강하구

의 문덕철새보호구에서 중간 기착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순천시는 전령사 흑두루미를 통해 남북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제3국에서 흑두루미 국제 네트워크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서식지로 부상하고 있는 순천만갯벌은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중국 연정시와 지자체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포함한 서해 갯벌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남북 연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연정 갯벌은 2018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연정시장은 순천시를 방문해 황해 갯벌 보전을 위한 도시 간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상습 침수’ 구례읍·마산면 하수도 정비

환경부 중점관리지역 선정...370억 투입 펌프장·하수관로 등 신설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 일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구례군은 상습 침수지역인 구례읍·마산면 일대가 환경부의 ‘2020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최종 선정, 침수 예방 사업이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구례군은 구례읍 빗물펌프장·펌프일체형 수문 신설과 하수관로 3.75km 신설 및 개량, 마산면 하수관로 2.14km 신설 등을 진행한다.

사업비는 국비 259억원을 포함해 37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침수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